



전시안내

관람 시간 화~일요일 09:30~17:00
 휴관일 월요일, 법정공휴일, 개교기념일(11월 1일)

연계행사

- 전차 개방 일시 9. 19 (화)~11. 17 (금) 14:00~15:00 (일요일, 휴관일 제외)
 축하공연 부산 전차를 따라, 그 시절 노래
 일시 9. 18 (월) 15:30 | 공연자 심정보(바리톤) & 노정미(피아니스트)
 릴레이 강연 부산 전차의 4인 사색(思索)
 일시 9. 18 (월) 14:00 | 강연자 전성현 (동아대학교 사학과)
 9. 26 (화) 14:00 | 김한근 (부경군대사료연구소)
 10. 10 (화) 14:00 | 이수호 (동아대학교 전기공학과)
 10. 17 (화) 14:00 | 박형호 (모던헤리티지)

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운영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
 SEO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

PART 4

부산 전차, END가 아닌 AND

1968년 5월 19일, '시민의 발' 이었던 부산 전차는 그 여정을 마쳤습니다. 이듬해 2월, 동아대학교는 전차 351호를 기증받았고 국가등록유산 등록과 보수정비를 거쳐 현재 옛 흔적을 지우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국가등록유산

부산 전차

부산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 차량 회사에서 제작한 반강제^{半鋼製} 보기식^{보기식}* 차량으로, 애틀랜타에서 운행되었습니다. 1952년 6월 19일 국제연합민사지원단^{UNCACK}의 원조로 40대 가운데 20대가 부산에 들어와 1968년 5월 19일 전량 폐차되기 전까지 시내 전역을 누볐습니다.

전차의 길이는 14m로, 상부의 집전기**를 제외한 높이는 3.2m, 폭 2.4m입니다. 앞뒤 모습과 구조가 같으며 전차의 양쪽 끝에 있는 제어기로 전·후진이 가능하였습니다. 전차 안에는 2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좌우에 12개씩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, 입석을 포함하면 100여 명이 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

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국제 전차로, 1950~1960년대 부산 시민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.

* 보기식: 앞뒤 두 대의 차대^{車臺} 위에 차체를 올려놓아 중량을 고르게 분산시키며 곡선운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
 ** 집전기: 공중의 전선에 전기를 모아 전력을 공급받는 장치



부산 전차

THE STREETCAR OF BUSAN

동아대학교 개교 77주년 기념 특별전

2023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

동아대학교
 석당박물관
 2층 전시실

2023.
 9. 18 MON
 |
 11. 19 SUN

PART 1

전깃불을 잡아먹고 달리는 괴물?!

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15년 11월 1일, 중앙동 부산우체국에서 동래 온천장까지 누비는 새로운 교통수단 전차의 등장은 부산을 '모던'한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.



동래 온천장역 정류소 개통식
1920년대 | 부경근대사료연구소



영도대교를 건너는 전차
1930년대 | 동아대학교 신동규



서면 차고의 폐전차 306호에서 열린 피난학교
1954년 | UN PHOT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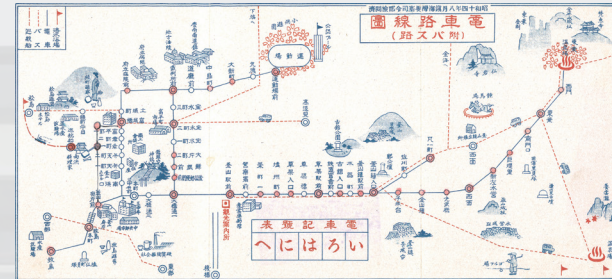


부산역 앞을 지나는 전차 378호
1960년대 | 정 컬렉션

PART 2

노선의 확장과 미국 전차의 수입

전차는 노선이 점차 확장되면서 부산의 운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.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난이 심해지자 '미국 전차'가 부산에 도입됩니다.



1939년 전차노선도 | 1939년 8월 | 정 컬렉션



애틀랜타 피치트리 거리를 이동하는 전차 973호
1943년 | Georgia State University Library



부산항 제4부두에서 미국 LA 전차 인수
1956년 6월 | 국가기록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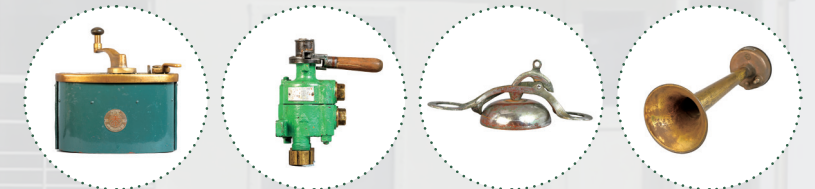


조지아 전력 회사 전차(860-899 모델)의 좌석 배치는 당시 미국 남부 인종차별의 단면을 보여준다. 인종차별 문구와 앞뒤가 반대인 전차 좌석 | 1920~40년대 | Atlanta Historic Center(좌)

PART 3

부산 전차 운행과 사람들

전차는 공중의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제어로 조종하여 평균 '시속 20~30km'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. 전차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타고 내렸고, 그들은 전차표를 사서 승차 때 차장에게 건넵니다.



주간-방향제어기
1957년 | 정 컬렉션

제동장치
1930~60년대 | 정 컬렉션

신호종
1960년대 | 정 컬렉션

경적
1960년대 | 정 컬렉션



- 1 전차 승차표(8구간)
1910~30년대 | 정 컬렉션
- 2 전차보통승차권
1960년대 | 부산시립박물관
- 3 전차 승환권
1935년 이후 | 정 컬렉션
- 4 통학승차권
1952년 | 부산시립박물관

